



영국, 연금사업 확대로 인한 생명보험시장의 성장

강윤지 연구원

요약

영국의 생명보험시장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으로, 연금상품이 생명보험료 수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 비중이 큰 것이 특징임. 연금사업이 발달한 이유로는 크게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의 도입, 확정급여(DB)형 연금 리스크 이전 시장의 성장, 종신연금 판매 회복세를 들 수 있음. AM Best는 금리 상승에 따른 DB형 연금의 자금조달 비율 개선, 투자수익 지원을 위한 비유동성 자산의 필요성 감소 등을 언급하며 영국의 생명보험시장이 안정적인 전망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함

○ 영국의 생명보험시장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으로, 연금상품이 생명보험료 수입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 비중이 큰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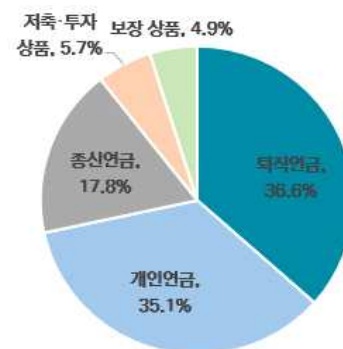
- 영국의 생명보험시장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도 3위였던 일본을 추월하며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됨¹⁾
 - 수입보험료는 미국 6,720억 달러, 중국 3,644억 달러에 이어 2,482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1인당 생명보험료 및 GDP 대비 생명보험료 비중은 상위 5개국 중 가장 높음(표 1) 참조)
- 생명보험사업은 저축·투자 상품과 보장 상품으로 인한 수입이 약 10%를 차지하는 반면, 연금상품이 수입보험료의 약 90%를 책임지고 있음(그림 1) 참조)

〈표 1〉 수입보험료 상위 5개국 데이터

(단위: 십억 달러, 달러, %)

구분	수입보험료	1인당 수입보험료	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중
미국	672	2,017	2.6
중국	364	266	2.0
영국	248	3,669	8.1
일본	244	1,942	6.9
프랑스	157	2,239	6.6

〈그림 1〉 수입보험료 구성비(2022년)



자료: Swiss Re(2023. 7. 10), "Sigma 3/2023 - World insurance : Stirred, and not shaken", 자료: Bank of England, "Insurance aggregate data annual report"

1) Swiss Re(2023.7.10), "Sigma 3/2023 - World insurance : Stirred, and not shaken"

- 영국의 생명보험시장에서 연금사업이 발달한 이유로는 크게 ①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의 도입, ② 확정급여(DB)형 연금 리스크 이전 시장(Pension Risk Transfer, 이하 'PRT')의 성장, ③ 종신연금 판매 회복세를 들 수 있음
-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는 2012년에 도입되었는데, 제도 도입 직전인 2011년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47.6%였으나, 2021년에 79.4%까지 올라가며 크게 증가함
 - 동 제도는 모든 기업에 대해 일정한 가입 자격(22세 이상, 연 10,0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가진 직원을 영국 정부가 승인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시키는 것과 고용주가 일정한 금액(최소 3%)을 기여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임
 - 이와 더불어, 고령화로 근로자의 기대수명이 늘어나 고용주의 연금비용이 증가하고 회사 상황에 관계없이 연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DB형 연금의 재무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용주가 지급 의무를 생명보험회사로 이전시키는 PRT 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특히,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국채의 수익률 상승으로 기금 운용의 재정 안정성이 강화되고 거래 비용이 줄어들어 PRT 거래가 크게 증가(2022년 280억 파운드, 2023년 450~600억 파운드로 추정)함²⁾
 - 또한 2015년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³⁾ 2016년 Solvency II 규제가 적용됨⁴⁾에 따라 종신연금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금리의 상승으로 종신연금의 운용수익률이 높아지고 EU 탈퇴 후 독자적으로 Solvency II를 재검토해 장수 리스크에 대한 요구 자본이 완화되면서 종신연금 판매가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종신연금 총 판매액은 52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며 연금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⁵⁾
- 신용평가기관 AM Best는 금리 상승에 따른 DB형 연금의 자금조달 비율 개선, 투자수익 지원을 위한 비유동성 자산의 필요성 감소 등을 언급하며 영국의 생명보험시장에 안정적인 전망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함⁶⁾
- 특히, 생명보험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금 사업이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대형 PRT 거래 등의 요인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또한 2023년 9월 연금 자동 등록 연장법(Pensions [Extension of Automatic Enrolment] Bill)이 제정됨에 따라 자동 가입 연령 제한이 18세로 낮아지고, 최저 소득 한도가 폐지되어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동 법은 늦어도 2025년 4월까지 적용이 시작되고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⁷⁾

2) PPF(2023. 12. 6), "The Purple Book 2023, DB pensions universe risk profile"

3) 연금자유화 시행 이전에는 일시금이나 분할 인출에 대해 55%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신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연금강제화 정책을 취하고 있었음

4) 종신연금 사업을 하는 생명보험회사에 더 높은 자본량이 요구됨에 따라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종신연금 사업을 축소하였음

5) ABI(2024. 2. 16), "2023 sets new post-pension freedoms record for annuity sales"

6) AM Best(2023. 4. 17), "Market Segment Outlook: United Kingdom Life Insurance"

7) FINANCIAL TIMES(2023. 9. 22), "Rollout of auto enrolled pensions for under-22s likely in 2025"